

2024년 국제 추수 감사절 섞임 특별 집회 표어

베드로전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이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로,
즉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베드로의 서신서들이 귀중한 까닭은
이 서신서들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에서 믿는 이들을 부르신 분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신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서,
믿는 이들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고,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제 추수감사절 쉬임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함

메시지 1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

성경: 벰전 1:2-3, 5, 10-12, 20, 2:1-5, 9, 3:4, 4:14, 5:10, 벰후 1:4, 3:13, 18

I. 베드로의 서신서들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이다.

- A. 하나님의 심판은 천사들을 심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벰후 2:3-4) 구약 시대에 살던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거꼴다(5-9절).
- B. 신약 시대에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벰전 1:17, 2:23, 4:6, 17)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계속된다(벰후 3:10). 그날은 천년왕국 전에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벰후 3:12).
- C. 천년왕국 후에는 사람들과 귀신들을 포함하여 죽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벰전 4:5, 벰후 3:7), 하늘들과 땅은 불타 버릴 것이다(10하, 12절).
- D. 여러 가지 심판의 결과는 똑같지 않다. 어떤 심판의 결과는 징계로 다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심판의 결과는 시대적인 형벌을 받는 것이며, 또 어떤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다 — 벰후 2:1 각주 5, 요점 2.
- E. 그러나 주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을 통하여 우주 전체를 말끔히 치우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얻으심으로써,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의로 충만한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벰후 3:13).
- F.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은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 있다.
 1.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높아지고 영이 너무 거만해져 교만하게 행하다가, 옥좌에서 내몰리고 영광도 빼앗겼다'(단 5:20). 하나님은 그가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그의 왕국이 그에게 보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단 4:26, 5:21).
 2. 그의 후손인 벨사살은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고, 다니엘은 그에게 "왕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왕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했다(단 5:22-23). 따라서 그의 왕국이 '나뉘어 미디어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단 5:28).
- G. 따라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벰전 1:17)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벰전 5:6)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분의 낮추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높이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이자, 겸손한 믿는 이 안에서 변성하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벰전 5:5, 1:2, 4:10).
- H.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이며(시 86:11, 사 11:2, 잠 1:7, 3:5-10),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사 43:7).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또한 다른 이들의 고난에 마음이 움직여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된다.

II. 베드로전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이나 기본 구조는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은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로, 즉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 A. 베드로전후서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힘을 주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운행하시므로써, 그분께 선택된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인 우리 사람의 영과 영광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우리의 뭉이신 하나님께 동참하기 위한 수단이다 — 벰전 1:2-3, 5, 11, 2:1-3, 5, 9, 3:4, 4:14, 5:10, 벰후 1:4.
- B. 베드로전후서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삼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어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므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먹게 하시며, 자라고 변화되고 건축되게 하셔서, 그분은 거처를 얻으시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어 그분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 벰전 1:23, 2:1-5, 9.
- C. 베드로는 요한과 바울과 자기 자신 같은 초기의 사도들이 (비록 일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용어와 말하는 방식과 어떤 일에 대한 관점과 가르침을 제시하는 법은 서로 달랐을지라도) 동일하고 유일한 사역, 곧 신약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담대하게 인정했다 — 벰후 1:12-21, 3:2, 15-16, 고후 3:6, 8-9, 4:1.
- D. 이러한 사역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 초점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삼일 하나님은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백성 안에 그분 자신을 그들의 유일한 생명의 뭉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삼일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 곧 충만으로 완결될 것이다 — 행 2:36, 3:13, 15, 10:36, 벰전 1:2-3, 18-19, 23, 2:2-5, 7, 9, 25, 3:7, 4:10, 17, 5:2, 4, 10, 벰후 1:2-4, 3:18.

III. 베드로는 여덟 장밖에 되지 않는 그의 두 서신서에서 창세전 영원 과거부터(벰전 1:2, 20) 영원 미래의 새 하늘들과 새 땅까지(벰후 3:13)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다루었다. 그는 신언자들이 예언했고 사도들이 전파했던(벰전 1:10-12)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밝혀 준다.

- A. 삼일 하나님의 측면에서.
 - 1.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안에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셨고(벰전 1:1-2, 2:9), 그들을 그분의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벰후 1:3).
 - 2.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으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나신(벰전 1:20) 분이므로써, 대속하는 죽음(2:24, 3:18)과 생명 안에서의 부활과 능력 안에서의 승천을 통하여(1:3, 3:21-22)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1:18-19, 2).
 - 3. 그 영은 하늘에서부터 보내지시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벰전 1:2, 12, 22, 4:14). 천사들도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보기를 갈망한다(1:12).
 - 4.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벰전 1:5), 그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공급했다(벰후 1:3-4).
 - 5. 또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치적인 심판들로(벰전 1:17, 2:23, 4:5-6, 17, 벰후 2:3-4, 9, 3:7) 그분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며(벰전 5:6), 모든 은혜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5:10).
 - 6. 주님은 그분의 백성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려고 그들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신다 — 벰후 3:9, 15.

7.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 벰전 1:5, 7-9, 13, 4:13, 5:4.

B. 믿는 이들의 측면에서.

1. 하나님의 소유인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벰전 1:2, 2:9), 그분의 영광과 미덕으로 부름 받았으며(2:9, 3:9, 벰후 1:3, 10),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고(벰전 1:18-19),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며(3, 23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다(3:21).
2.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고(벰전 1:5), 정결하게 되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22절),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써 자라고 있고(2:2), 생명 안에서 영적인 미덕들을 발전시키고 있으며(벰후 1:5-8), 변화되고 건축되어 영적인 집,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되어 가고 있다(벰전 2:4-5, 9).
3. 믿는 이들은 그분의 미덕들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고, 왕들이나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개인적인 소유가 된 특별한 백성이다 — 벰전 2:9.
4. 믿는 이들은 그분의 통치적인 심판으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벰전 1:17, 2:19-21, 3:9, 14, 17, 4:6, 12-19, 5:6, 9),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뛰어난 생활 방식으로 경건하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1:15, 2:12, 3:1-2). 또한 그들은 본을 보이는 장로들의 목양 아래서(벰전 5:1-4)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은사를 공급하고 있다(4:10-11). 믿는 이들은 주님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넉넉하게 주어지도록(벰후 1:11) 주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며 재촉하고 있다(벰전 1:13, 벰후 3:12).
5. 더 나아가 믿는 이들은 영원 안에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으며(벰후 3:13), 우리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자라고 있다(18절).

C. 사탄의 측면에서 — 사탄은 믿는 이들의 대적, 마귀로서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 벰전 5:8.

D. 우주의 측면에서.

1. 타락한 천사들은 유죄판결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벰후 2:4). 경건하지 않았던 옛 세상은 홍수로 멸망했고(2:5, 3:6), 경건하지 않았던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다(2:6). 변절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과 조롱하는 이단적인 사람들과 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인류는 모두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벰후 2:1, 3, 9-10, 12, 3:3-4, 7, 벰전 4:5). 하늘들과 땅은 타 버릴 것이고(벰후 3:7, 10-11), 죽은 사람들과 귀신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벰전 4:5).
2. 그다음에 새로운 우주인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올 것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 벰후 3:13, 비교 사 1:26.

메시지 2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

성경: 벨전 1:17, 2:21-24, 4:17-19, 5:6

I.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관한 것이다.

- A.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 벨전 1:2.
- B.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벨후 1:1-4, 3:13.
- C.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벨전 1:17, 4:17.
 - 1.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책이므로, 이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심판이 필수적인 항목들 중의 하나로서 반복하여 언급된다 — 벨전 2:23, 4:5-6, 17, 벨후 2:3-4, 9, 3:7.
 - 2. 주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심판을 통하여 우주 전체를 말끔히 치우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얻으심으로써,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의로 충만한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 벨후 3:13.
- D.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 심판은 아버지에게 의해 수행되는데, 이것은 장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현재의, 매일의 심판이다.
 - 1. 아버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한 자녀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가족을 산출하셨다 — 벨전 1:3, 15, 17.
 - 2. 거룩한 자녀들인 우리는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벨전 1:15-16).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루실 것이다(벨전 4:15-17, 히 12:9-10).
- E. 하나님의 통치에서 징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 벨전 4:17.
 - 1.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매일의 심판 아래 있다 — 벨전 1:17.
 - 2.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의 심판을 하실 때 불같이 흑독한 시련을 사용하심으로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데, 이러한 심판은 그분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 벨전 4:12, 17.
 - 3.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다 — 벨전 4:6.

II. 베드로의 서신서들이 귀중한 까닭은 이 서신서들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 벨전 1:17, 2:21, 24, 3:15, 4:17, 5:5-8.

- A.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긴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 요 1:14, 14:17, 고전 15:45하, 6:17.
- B. 동시에 삼일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 벨전 4:19.
- C.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고 새 창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있다 — 요 1:12-13, 3:3, 5-6, 고후 5:17.
 - 1.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름이 필요하다 — 벨전 1:17.
 - 2.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징계가 필요하다 — 벨전 2:2, 4:17, 벨후 1:5-7.

Ⅲ.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간 생활을 하였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셨다 — 요 6:38, 벰전 2:21-23.

- A. 주님은 그분 자신께서 받으신 모든 모욕과 상처를, 의롭게 심판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신 의로우신 하나님께 계속 맡기시고,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주님은 이러한 의로우신 분을 신뢰하셨고 그분의 통치를 인식하셨다 — 벰전 2:23.
- B.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조연해 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접촉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속부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그분을 가르쳤다 — 시 16:7, 사 50:4.

Ⅳ.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 — 요 3:15, 1:12-13, 벰전 4:13-19, 5:6-8.

- A. 베드로의 서신서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집행하시는 통치적인 처리를 우리가 능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 벰전 1:6-8, 2:3-4, 19, 21-25, 3:18, 22, 4:1, 15-16, 5:8-9.
- B. 우리는 체류자로 사는 동안 거룩한 두려움으로, 곧 건강하고도 진지한 신중성으로 지내야 한다. 이러한 신중함은 우리를 이끌어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한다 — 벰전 1:15, 17.
- C.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 벰전 5:6.
 - 1.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다스리는 손을 가리킨다 — 벰전 1:17, 4:17.
 - 2.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운행과 협력하여,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 — 벰전 5:6.
- D. 우리는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한다 — 벰전 4:19.
 - 1.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보존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애정 어린 신실한 돌봄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 안에 있는 공평함과 더불어 수행된다.
 - 2.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는 그분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혼을 우리의 창조주의 신실한 돌봄에 맡겨야 한다 — 마 10:28, 11:28-29.
- E.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들에 대하여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 벰전 2:24.
 - 1. 하나님의 통치는 의 위에 세워진다(시 89:14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 2. '의에 대하여 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요구들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다 — 벰전 2:24.
 - a.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롭게 살도록, 즉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운 요구들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살도록 구원받았다.
 - b.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들에서 분별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살아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 롬 6:8, 10-11, 18, 엡 2:6, 요 14:19, 딤후 2:11.

메시지 3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

성경: 벵전 1:8, 2:1-5, 9, 벵후 1:3-4

- I. 베드로의 서신서들과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은 생명과 건축물이다 — 벵전 1:23, 2:2-5, 벵후 1:3-4.
- A.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재화되시어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며, 건축물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다 — 창 2:8-9, 22, 마 16:18, 골 2:19, 엡 4:16.
 - B.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시며, 이 생명의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관련 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생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생명의 풍성한 넘쳐흐름이자 생명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한다 — 벵후 1:3-4, 비교 행 3:15, 영한 동번 찬송가 203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154장) 4절.
- II. 하나님의 목표는 살아 있는 돌들로 건축된 영적인 집을 갖는 것이다 — 벵전 2:5.
- A.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썩지 않을 씨이시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는 살아 있는 돌이시다 — 벵전 1:23, 2:4.
 - B. 베드로가 주님께 돌이켰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 곧 ‘돌’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요 1:42).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에 주님은 그분 자신이 반석, 곧 ‘돌’이시라는 더 전진된 계시를 주셨다(마 16:18).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 있는 돌들이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벵전 2:4-8, 행 4:11, 사 28:16, 슄 4:7).
 - C.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거듭남과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사관인 살아 있는 돌들이 된다. 우리는 진흙으로 창조되었지만(롬 9:21), 거듭날 때에 신성한 생명의 씨를 받았으며, 이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람으로써 우리는 살아 있는 돌들로 변화된다(벵전 2:5).
- III. 하나님의 건축물은 살아 있는 것이므로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이 성장함으로 이루어진다 — 엡 2:21.
- A.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며, 늘 깨어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의 노선에 머물러야 한다 — 벵전 1:8, 2:2, 5, 3:4, 15, 잠 4:18-23, 신 10:12, 막 12:30.
 - B.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십자가의 파쇄, 곧 그리스도의 죽이는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들을 반드시 처리하고 제거해야 한다 — 벵전 1:11, 4:14, 시 139:23-24.
 1.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외의 그 무엇도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장애물은 우리가 생명의 노선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다 — 마 7:13-14, 빌 3:8-14, 골 3:4, 롬 8:28-29.
 2. 두 번째 장애물은 위선이다. 사람의 영성은 외적인 모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 마 6:1-6, 15:7-8, 요 5:44, 12:42-43, 비교 수 7:21.
 3. 세 번째 장애물은 반역이다.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열심히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함으로 그분을 우리 속에 가두고 그분께 불순종할 수 있다 — 레 14:9, 14-18, 11:1-2, 46-47, 롬 16:17, 고전 15:33.

4. 네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타고난 재능들이다. 만일 우리의 타고난 재능들이 파쇄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될 것이다 — 고전 2:14-15, 3:12, 16-17, 유 19, 비교 레 10:1-2.
- C.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의 악한 말’을 버려야 한다 — 벨전 2:1.
- D.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한 젖으로 양육받아야 한다 — 벨전 2:2.
 1. 순전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달되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의 이해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양육하며, 우리의 지적인 능력에 의해 흡수된다 — 롬 8:6, 비교 신 11:18.
 2. 양육하는 말씀의 젖은 생각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혼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영을 양육하여 우리를 혼적이지 않고 영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기에 적합하게 한다 — 비교 고전 2:15.
 3. 말씀의 젖을 누리려면, 즉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온갖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려야 한다 — 벨전 2:3, 엡 6:17-18, 시 119:15, 23, 48, 78, 99, 148.
 - a.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숙고함으로써 말씀을 음미하고 누리는 것이다 — 벨전 2:2-3, 시 119:103.
 - b. 기도하고, 자신에게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재고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다 — 레 11:3.
 4. 말씀 안에 있는 양육하는 것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성숙에 이르도록 자란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구원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변화되는 문제이다.
 5. 우리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젖-그리스도’를 누리므로써 ‘돌-그리스도’이신 그분으로 변화되고, ‘몸-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된다 — 벨전 2:2-4, 고전 12:12-13.

IV. 거룩한 제사장 체계 곧 동역하는 제사장 무리는 건축된 영적인 집이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거하실 수 있는 영적인 집과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무리, 곧 단체적인 제사장 체계를 원하신다 — 벨전 2:5, 출 19:5-6.

- A.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이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벨전 2:9). ‘선택받은 족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왕들이인 제사장 체계’는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가리킨다. ‘거룩한 민족’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라는 것을 가리키며,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리킨다.
- B. 우리의 단체적인 제사장 봉사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복음으로 널리 알려서(벨전 2:9),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5하절). 이러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은 다음과 같다.
 1.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같은, 구약의 예표인 모든 희생 제물의 실재이신 그리스도 — 레 1-5장.
 2. 우리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드러지는 죄인들 — 롬 15:16.
 3. 우리의 몸,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 — 롬 12:1, 히 13:15-16, 빌 4:18.

- C.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제사장 봉사는 ‘분량을 재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제사장 봉사는 반드시 그분의 인도와 제한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이 모든 봉사를 하는 중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허락하여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후 10:13, 요 12:24, 21:15-22, 삼하 7:18, 25, 27, 눅 1:37-38, 영한 동번 찬송가 907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50장).

메시지 4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과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성경: 뵤전 2:21-23, 25, 마 11:28-30, 빌 1:27, 2:2

- I.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써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다 — 뵤전 2:21.
- A.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신 생활은 하나의 본이며, 우리가 그분의 재생산이 됨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 뵤전 2:21-23, 엡 4:20-21.
- B.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글씨 쓰기를 가르칠 때 사용한 원본 혹은 습자첩(習字帖)으로, 학생들이 글씨를 배울 때 밑에 놓고 글자를 따라 쓰는 글씨본을 가리킨다.
1. 주 예수님은 그분의 생활을 우리 앞에 글씨본으로 세우시어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밟아 따라감으로써 그분의 생활을 복사하게 하셨다 — 마 11:28-30.
 2.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방이 아니라 재생산이다 — 롬 8:29, 고후 3:18.
- C.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수반하는 과정에 의해 그리스도의 재생산,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완성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것이다 — 요 3:15, 엡 3:8.
- D.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시라고 한 베드로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복사기로 복사하는 것을 예로 사용할 수 있다.
- E.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며,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 갈 2:20, 4:19, 엡 3:16-17상.
1.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와 깊이 연관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 갈 1:16, 골 3:10-11.
 2.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 고평 15:45하, 갈 2:20.
 - a.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 요 14:19.
 - b.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고 주님과 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주님과 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 — 고평 6:17, 골 3:4, 빌 1:21상.
 - c.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해야 한다 — 요 14:16-19, 갈 2:20.
 3.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다 — 갈 4:19.
 - a.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고, 그 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 안에 사시며, 결국 우리가 성숙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 요 1:12-13, 3:15, 갈 2:20, 4:19.
 - b.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다 — 골 2:19, 엡 4:15-16.
 - c.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있는 것을 함축한다 — 골 3:10-11.
 - d.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형상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고평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말과 일치한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갖고 그분을 표현할 것이다.

4.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 엡 3:16-17상.
5.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된다 — 롬 8:29, 12:4-5, 계 21:2.

II.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때, 우리는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 벧전 2:25, 마 11:28-30, 빌 1:27, 2:2.

- A. 우리 혼의 목자로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며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을 돌보신다.
 1.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은 주로 우리의 혼을 돌보는 것이다 — 시 23:3.
 2.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 비교 히 13:17.
 3. 이러한 목양은 내적이고 내재적이며 유기적인 위로이다.
- B. 우리의 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것,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여러 문제와 필요와 상처를 돌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 요 14:16-17, 고전 15:45하, 6:17.
 1. 공기 같은 영이신 우리의 목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를 돌보신다.
 2. 그분의 목양은 우리 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혼의 각 부분으로 확장된다.
 3. 우리 영에서부터 그리스도는 우리 혼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시며, 부드럽고 유기적이며 모든 것을 포함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 C.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혼을 소생시키신다 — 시 23:3상.
 1. 우리 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흥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우리 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또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롬 12:2, 고후 3:18.
- D. 우리 혼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혼에 안식을 주신다 — 마 11:28-30.
 1. 주님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거나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이들을 그분께 와서 안식하라고 부르신다 — 마 11:28.
 2. 이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킨다.
 3. 주님의 명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마 12:50.
 4. 주님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제한받으시고 그분의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요 4:34, 5:30, 6:38).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만족하시어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다.
 5. 주님의 명에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내적인 안식, 곧 우리 혼을 위한 안식이다 — 마 11:29-30.
- E. 주님께서 우리 혼을 목양하시고 소생시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 아니라 누린다 — 빌 2:2, 3:1상.
 1.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문제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문제이다 — 빌 1:27, 2:2.
 2. 우리의 혼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갖지 못한다.
 3.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입맛은 주로 우리의 혼과 관련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혼의 각 부분, 특별히 우리 생각을 목양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메시지 5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

성경: 벰전 1:2하, 10, 13, 2:19-20, 3:7, 4:10, 5:5, 10, 12, 벰후 1:2, 3:18

- I.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은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 요 1:14, 16-17, 사 55:1, 고후 1:8-9, 12, 갈 2:20, 비교 고평전 15:10.
- II. 은혜의 변성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변성하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고 변성하며 넘친다 — 벰전 1:2하, 벰후 1:2, 요 1:16, 엡 1:6-8, 2:7, 롬 5:17, 21, 딤평전 1:14, 계 22:21.
 - A. 은혜는 우리의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변성한다.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게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는다 — 고후 12:7-9, 비교 1:12, 15.
 - B.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 엡 6:24, 요 21:15-17, 벰전 1:8.
 - C.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신성한 본성을 지닌 은혜이신 주님을 누릴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의 말씀은 그분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모든 약속을 포함한다 — 행 20:32, 벰후 1:4, 엡 6:17-18.
- III. 구약에 있는 신언자들은 우리가 얻을 은혜에 관하여 예언했다 — 벰전 1:10.
 - A. 구약의 신언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육체 되심,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서의 그분의 고난들,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과 왕으로서 다스림에서의 그분의 영광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신언자들에게 분명히 알려 주셨다 — 벰전 1:5, 9-10, 비교 시 22편, 사 53장, 단 9:26.
 - B. 비록 그리스도의 영께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또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시대적으로 조성되셨을지라도(요 7:39, 롬 8:9-11), 그리스도의 영의 기능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영이시기 때문이다(히 9:14).
 - C. 영원한 기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의 신언자들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무한한 은혜가 되시므로써, 그들을 왕국 시대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즉 그들의 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관하여 구약의 신언자들에게 분명히 알려 주셨다 — 요 1:17, 히 10:29하, 벰전 1:9, 마 25:21, 23.
 - D. 그리스도의 영은 두 가지 수단 곧 구약의 신언자들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들의 전파에 의해, 은혜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 벰전 1:10-12, 비교 계 2:7상.
- IV. 믿는 이들이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 벰전 1:13.
 - A.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는 혼의 구원을 가리키며, 이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이 될 것이다 — 벰전 1:5, 9-10.
 - 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 — 딤평후 1:9, 딤평 2:11.

2.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심으로 사람이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셨다 — 요 1:1, 14, 16-17.

3.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주하시는 영으로 완결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하시는 은혜의 영이 되셨다 — 고전 15:45하, 고후 3:17, 히 10:29, 갈 6:18, 빌 4:23.

B.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는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하며, 이 은혜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완전하고도 온전히 두어야 한다 — 롬 5:17, 벰전 1:13.

V.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동기와 우리의 생활에 나타난 이 신성한 생명의 표현을 가리킨다. 그러한 표현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은혜롭고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

A. 우리의 누림을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인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적 동기와 외적 표현이 된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갖는 법, 즉 은혜를 취하고 은혜를 소유하며 은혜를 사용하고 은혜를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히 12:28.

B. 우리가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누린,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교회 집회들에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표현되신다 — 행 11:23.

C.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에 따라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 복사관이 되기 위한 것이다 — 벰전 2:20-21.

VI. 생명의 은혜는 강한 믿는 이든 약한 믿는 이든, 모든 믿는 이의 유업이다 — 벰전 3:7.

A. 생명의 은혜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삼일성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생명의 통로이신 아들, 생명의 흐름이신 그 영이며, 그 영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서 흐르시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다 — 요 7:38-39, 계 22:1.

B.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고 생명의 은혜를 담는 그릇들이다 — 벰전 3:7, 엡 1:14, 고후 4:7.

VII.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가리킨다 — 벰전 4:10.

A.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는 생명의 풍성한 공급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 안으로 공급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 고후 13:14, 12:9.

B.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인 은혜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해야 한다 — 벰전 4:10-11, 눅 4:22, 엡 3:2, 4:29.

VIII.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이들은 대적하신다 — 벰전 5:5.

A.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맴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 — 비교 요 13:3-5.

B. 겸손은 모든 종류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지만, 교만은 우리를 가장 어리석은 이로 만든다 — 약 4:6, 시 138:6, 잠 29:23.

C.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하며, 우리의 일생과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이다 — 벰전 5:5-7, 비교 시 55:22.

- IX.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에서 믿는 이들을 부르신 분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신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서, 믿는 이들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야 한다 — 벰전 5:10, 12.
- X. 믿는 이들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은혜, 곧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으로써,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 벰후 3:18.
- A.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들의 끝맺는 말로서, 베드로가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된 것임을 가리킨다.
- B.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의 산물은 하나님의 시(詩)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은 새 하늘들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 엡 2:7-10, 벰후 3:13, 계 22:21.
- C.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며, 영원히 공개적으로 보일 것이다 — 엡 2:7.

메시지 6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됨과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킴

성경: 벧후 1:1, 3-11, 3:18

- I.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이들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벧후 1:4.
- A.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 곧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과 요소들과 조성 성분들을 가리킨다 — 요 4:24, 요일 1:5, 4:8, 16.
 - B.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은 분리될 수 없다. 신성한 본성은 신성한 생명의 실질이며 신성한 생명 안에 있다 — 요일 1:1-2, 5:11-13.
 - C.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하나님 종(種)에 속한다 — 요일 3:1, 요 1:12-13.
 - 1. 우리가 거듭났을 때 또 다른 본성이 우리 안에 넣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신성한 본성이다 — 벧후 1:4.
 - 2. 신성한 본성이 신성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얻은 신성한 생명 안에는 신성한 본성이 있다 — 요 3:3, 5-6, 15.
 - 3.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믿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요 1:12-13.
 - D.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은 신성한 본성을 누리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 벧후 1:4.
 - 1.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을 누리는 것이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과 요소들과 조성 성분들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 벧전 1:8.
 - 2.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속에 신성한 본성이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한다 — 요 1:4, 10:10, 11:25, 6:57하.
 - E.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통하여 신성한 본성의 풍성을 누린다 — 고후 12:9, 마 28:20하, 엡 3:20.
 - F.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벗어나고 동참하고, 동참하고 벗어나는 순환 안에서 살아야 한다 — 벧후 1:4.
 - G.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에 동참한다면,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되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표현할 것이다 — 벧후 1:3.
 - H.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모든 어떠한 심을 누릴 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묘사된 것처럼 신성한 본성의 풍성이 완전히 발전될 것이다.
- II. 우리는 우리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씨 안에 담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발전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 벧후 1:1, 4-11.
- A.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롭고 놀라운 믿음을 할당받았으며, 이 믿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씨이다 — 벧후 1:1.

1. 모든 신성한 풍성이 이 씨 안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풍성을 부지런히 발전시켜야 한다.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 벨후 1:1-8, 3:18.
 2. 이러한 미덕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생명이 자라며, 결국에는 성숙에 이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며, 장차 올 왕국에서 왕들이 될 자격과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 엡 4:13-15, 골 2:19, 벨후 1:11.
 3. 우리는 믿음이라는 씨로부터, 미덕과 지식이라는 뿌리와, 자제라는 줄기와, 인내와 경건이라는 가지를 거쳐, 형제 사랑과 신성한 사랑이라는 꽃과 열매에 이르도록 완전히 발전하고 성숙해야 한다 — 벨후 1:5-7.
- B. 믿음에다 미덕을 더하여 공급하는 것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사용하여 미덕, 다시 말하면 활력 있는 행동을 산출하는 신성한 생명의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신성한 생명의 미덕이 다음 단계들로 발전되어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 벨후 1:5상.
- C. 우리는 미덕에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넘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미덕에 더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지식에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지식,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지식, 신성한 능력과 영광과 미덕과 본성과 생명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 벨후 1:5하.
- D. 자제는 자신의 감정과 갈망과 습관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생명이 합당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 안에서 이러한 자제를 훈련해야 한다 — 벨후 1:6상.
- E. 인내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견디는 것이다 — 벨후 1:6하.
- F. 경건은 하나님 같은 생활이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이다 — 벨후 1:6하.
- G. 형제 사랑(빌라델비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랑, 곧 형제애이다. 우리는 형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증언하며,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표현인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더하여 공급해야 한다 — 벨후 1:7상, 벨전 2:17, 3:8, 갈 6:10, 요 13:34-35, 15:16-17.
- H.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의 궁극적인 발전은 사랑, 곧 '아가페'이다.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한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 벨후 1:7하, 요일 4:8, 16.
1. 우리의 형제 사랑은 더 고귀하고 더 높은 사랑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벨후 1:7하.
 2.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누림으로써, 할당된 믿음이라는 신성한 씨가 발전하여 신성하고 더 고귀한 사랑으로 완결되도록 해야 한다 — 벨후 1:5-7.
 3.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최고도로 동참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며 심지어 사랑 자체가 된다 — 엡 3:19.
- I.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영적인 미덕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신성한 생명의 성장에서 진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한다 — 벨후 1:10.
- J. 우리는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성장과 발전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한다 — 벨후 1:10-11.
1.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서(벨후 1:3-7) 우리가 누리게 되는 넘치는 공급으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질 것이다.
 2. 우리는 이 넘치는 공급을 받아, 우리의 탁월한 미덕들(에너지)로 말미암아, 곧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모든 풍성으로 말미암아 장차 올 왕국에 들어갈 권리와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 벨후 1:3, 벨전 5:10.
 3.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발전을 통해 우리가 풍성한 공급을 받아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